

담을 넘는 아이

등장인물

담

카페사장

영웅

화이트 캣

핑크 캣

옐로우 캣

뽀글이

뽀글이 엄마

영웅 엄마

소방관

직원1

행인1

김채영

1장

(남색 어두운 조명)

담: (담을 넘으며 무대로 등장 관객석을 보고 놀라며)
보..보셨나요? 아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..
도둑이라고 생각하셨죠? 도둑 아닙니다!! 그런
뻘한 스토리일리 없죠.. 전! 담을 넘는 아이입
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(담을 넘는다) 어때
요? 멋있죠? 네 제가 바로 담을 넘는 아이입니
다. 아 언제부터 담을 넘기 시작했냐고요? 아마
그때부터였을 겁니다.

<공원 풀숲>

담이 어린시절: (풀숲에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 거린
뒤 다시 숨어버린다.)

영웅: (뛰면서 등장) 으아아악 들키면 죽을거야... 어
디아... 어디.. 어? (담이가 숨은 풀숲으로 숨는
다)

(정적)

담이 어린시절: 아저씨.

영웅: 으아아악!! 엄마 죄송해요... 다신 안 그럴게요!
앵? 아저씨?

담이 어린시절: 아저씨 혼자 뭐하세요?

(정적)

영웅: 아 하하하하 나? 어.. 나 말이야 아 나는 비밀임
무 중이야

담이 어린시절: 비밀임무?

영웅: 검은 조직한테 쫓기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숨
어있는거야.

담이 어린시절: 엄마?

영웅: 아니거든! 검은 조직이 날 쫓고 있다고

담이 어린시절: 그렇구나 아저씨 그보다 저 숨바꼭질
중이니까 다른데 가서 숨으실래요? 아저씨 때
문에 저까지 들켜겠어요.

영웅: 아저씨 아니야! 내가 얼마나 젊은데!

담이 어린시절: 저보다 젊어요?

영웅: 이 꼬맹이가? (머리를 한대 때린다.)

담이 어린시절: 이씨...

(영웅 엄마가 등장한다. /영웅이 담을 넘는 어린아이의 입을 막는다.)

영웅 엄마: 아유 애는 진짜... 4수까지 해놓고 어딜 싸 돌아 다니는 거야! 찾기만 해봐!

담이 어린시절: 아저씨 찾는거 같은데...

영웅: 조용히 해

담이 어린시절: 소리 지를 거예요..

영웅: 뭐? 너 소리지르기만 해봐

담이 어린시절: (소리 지르려고 한다.)

영웅: 꼬맹아 사탕 먹을래? (사탕을 건넨다.)

담이 어린시절: 꼬맹아?

영웅: 공주님?

담이 어린시절: 담

영웅: 어?

담이 어린시절: 담이라고요 제 이름

영웅: 아 그래 이쁜 이름이네 담아.

담이 어린시절: 흥! (쓱스러워하며 사탕을 뺏어간다.)

(영웅 엄마 공시령 거리며 퇴장)

영웅: 하아... 죽는줄 알았네.. 꼬맹...이 아니라 담이
 협조해줘서 고맙다. 들켰으면 조직에 끌려갈 뻔
 했어

담이 어린시절: 네에~ 네에~ (작게) 거짓말쟁이..

영웅: 뭐라고?

담이 어린시절: 아니에요

영웅: 그보다 너 이 늦은 밤에 위험하게 혼자 있어?

담이 어린시절: 아까 숨바꼭질이라고 말했잖아요.

영웅: 알아. 근데 아무도 널 안 찾잖아

담이 어린시절:

영웅: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?

담이 어린시절:

영웅: 할거 없으면... 나 따라와도 되는데

담이 어린시절:(힐끔 쳐다본다) 어딜요?

영웅: (멋지게 망토를 두르고 웃으며) 가자 (담에게 손을 내민다.)

담이 어린시절: (머뭇거리더니 손을 잡는다.)

(영웅의 손을 잡고 담을 넘는다)

영웅: 너 생각보다 대단한데? 이런 높은 곳도 무서워하지 않고

담이 어린시절: 네? 높은 곳이요? (아래를 살펴본다.)
별로 높지 않은걸요? 그보다 아저씨 망토 두르고 여기서 뭐 할 건데요?

영웅: 아저씨 아니라니까... 난 영웅이라고 해. 담을 넘어 다니지

담이 어린시절: 담을... 넘어 다녀요? 왜요?

영웅: 저기를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. (손으로 관객석을 가르킨다)

담이 어린시절: (관객석을 보더니 세상에서 쎄 기쁜 표정을 짓는다) 우와....

영웅: 어때?

담이 어린시절: 어.. 기분이 이상해요...

영웅: 그건 기분이 이상한게 아니라 좋은 거야

담이 어린시절: 아저씨...

영웅: 아저씨 아니라니까..

담이 어린시절: 아저씨가 담을 왜 넘어 다니는지
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...

영웅: 난 힘들 때마다 담을 넘어. 담은 내가 슬플 땐 넓은 세상을 보라고 높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줘, 그리고 가끔은 내 한계를 도전해보게 높은 담으로 날 시험하기도 하지. 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. 넌 힘들 때 어떻게 해?

담이 어린시절:숨바꼭질

영웅: (머리를 쓰다듬는다.) 너도 담을 넘어보는건 어때?

담이 어린시절: 어떻게 넘는데요?

영웅: 이 망토를 쓰고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야

담을 넘어서.

담이 어린시절: 근데 왜 망토를 쓰는 거예요?

영웅: 망토를 써야지 내 정체를 숨길 수 있잖아. 망토가 날 가려주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도 날 못 알아보지. 음... 예를 들어 네가 힘들 때 숨바꼭질을 한다고 했잖아? 그럼 숨바꼭질을 망토를 쓰고 하는 거야. 그럼 만약 들켜더라도 너인지 못 알아보고 지나가겠지?

담이 어린시절: 날 숨길 수 있는 거...

영웅: 자 이건 선물이야. (담이에게 망토를 돌려준다.)

(어두워짐)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

담: 그때부터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담을 넘기 시작했던 거지. 담을 넘기 시작한 그 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.

화이트 캣: 담이님! 망토를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!

핑크/옐로우 캣: 맞아요!

담: 절대 안 돼. 너희 내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... (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을 놀래킨다.)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오아아악

담: 대신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. (사료 주면서) 저번에 담을 넘다가 도둑을 만난 적이 있어 근데 날 보고 헐레벌떡 도망가는 거야.

내가 담을 넘은 경력만 해도 몇이나 난 당연히 도둑을 따라잡고 경찰서에 잡아넣지. 또 한번은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아무 잘못 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간지나게 말했지 ‘정의에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!’ 하고 말하니 도망쳤어

화이트 캣: 역시! 담이님은 대단해요! 담이님! 담이님은 평소에도 멋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?

담이: 평소에... 어... 그렇지 난 남을 위해 돕는 것이 내 일이야

옐로우 캣: 어떤 일인데요?

담이: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.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를 지키는 일...?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우와 / 지구를 지킨대! / 멋있다 (서로 왼쪽에 있는 애를 쳐다보며 말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애는 왼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해한다.)

담이: 그렇지! 가끔은 비밀 업무를 담당해 그 사람이
나한테 임무를 맡기면 난 물건을 가지고 조심
히 옮기는 일을 하지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역시! /담이님!/ 멋있어요 /

같이: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?

담이: 요 앞 건물 회사..가 아니다!!!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(공책에 적는다) 앞 건물 회
사...

담이: 야!! 적지마!! 이놈들아! (화이트 캣과 핑크 캣
의 것을 찢는다/ 옐로우 캣이 종이를 숨긴다)
너희들 집 어지르지 말고 암전히 있어! 알았지?
난 이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갈 시간이다.

화이트 캣: 오늘은 무슨 일 하러 가세요?

핑크 캣: 멋진 일이면 저희도 갈래요!!

담: 안 돼! 너희들은 아직 담도 못 넘잖아. (한숨) 너희
가 왜 담을 넘지 못하는지 알아?

너희가 담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
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.

두려움을 극복해야지! 나 없는 동안 연습하고
있어. 너희들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야.

을 때 너희가 좋아하는 참치 사올게.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네….

담: 아~ 저기서 날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네… 그럼
이 담이님은 간다! (담을 넘어감)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(사료에 모여 정신없이 먹는다)

2장

(골목길)

담: (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.)
하.. 큰일 날 뻔 했네.. 8시 30분.. 아직 출근하
려면 30분이나 남았네…

<카페 창문에서 등장.>

담이: 사장님! 토스트 하나 주세요

카페 사장님: (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쾅다.) 에구머니
나! 아오 아가씨! 진짜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
겠어!!

담이: 죄송해요.... 그 토스트 하나요

카페 사장님: 아가씨! 왜 자꾸 멀쩡한 문 놔두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야? 그리고 아가씨가 저승사자야? 맨날 시켜면 망토를 두르고 다녀?

담이: 사장님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지 않았어요? 3년째인데...

카페 사장: 그러게 아가씨는 3년째인데 변하지도 않고 매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불쑥 튀어나오나

담: 그래도 저번처럼 옥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

카페 사장: 아유 그때는 진짜 도둑인 줄 알았어! 다신 그러지 마

담: 사장님! 그리고 언제까지 아가씨라고 부를 거예요! 저는 담이라고요 담!

카페 사장: 그래! 담! 담! 담! 담! 됐나!

어휴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
담 좀 그만 넘어.

담 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...

담: 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? 그거라면 걱정 없어요.
전 무려 13년 동안 담을 넘어 다녔으니까요

(핸드폰을 확인하고) 하.. 아메리카노도 1잔 주세요

카페 사장님: 아메리카노? 아가씨 내가 만든 아메리카노가 맛있어?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내 아메리카노에는 짠맛과 매운맛이 난다고
난 살다 살다 아가씨처럼 특이한 사람 처음 봐.
우리 카페에서 벌써 3년째 커피를 사 마시다니 아가씨 혹시 난독증이야?

답이: 제가 마시는 건 아니긴 한데... 근데 난독증? 그게 뭐예요?

카페 사장님: 아 글씨 못 읽는 사람.
여기 표지판에 커피는 맛이 없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분명 써놨는데...
우리 가게에서 커피 사 가는 사람 아가씨밖에 없어.

답이: 사장님이 더 특이하신데요..? 카페에서 트로트 노래가 뭐예요? 그리고 카페에서 한식을 왜 파는 거예요...?

카페 사장님:(살짝 정색했다가) 아가씨 몰랐어? 일식도 팔고 중식도 팔아

답이: 예?

답이&카페 사장님: 정말 특이하네... (서로 마주 보며)

(암전)

3장

<회사>

담: 앗! 또 담을 넘었잖아.. 내 다리는 왜 평범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야.. (망토를 벗어 가방에 넣는다)

뺨질이: 어? 뭐야. 너 아직도 담 넘고 다니냐?

담: 아... 하필 저 사람한테... 안녕하세요.

뺨질이: 야 넌 철도 없냐. 초딩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담을 넘어 다녀... 무슨 스파이 놀이라도 하나? (웃기게 스파이 흉내를 낸다.) 너 담 넘어다니는거 부모님은 아시냐? 진짜 창피하겠다..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지는거야

담: (소심하게) 내가 담 하나 넘는다고 해서 사회가 망하지는 않거든요?

뺨질이: 니가 담 넘는게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는거야. 담 넘는다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어? 어? 살릴 수 있냐고 대답 좀 해봐

담: 그건 모르는거죠..

뺨질이: (담 손에 있던 커피를 빼앗아 마시면서) 음...
역시 이 맛이야. 짠맛과 매운 맛이 어우러지는..
너 이제부터 담 넘어다니지 말고 내 커피나 사
와 알았어?

담: 네?

뺨질이: 앞으로 커피나 사오라고, 그리고 오늘은 화장
실이랑 회사 앞에 좀 청소해라! 아까 보니까 쓰
레기가 굴러다니던데 우리같이 잘 나가는 회
사가 더러우면 안 되지... 야 네가 가장 중요한
임무를 맡고 있는 거 알지?

회사에서는 청소부가 중심이야! 중심! 아~ 나
도 한가하게 청소나 하고 싶다. 올 때 커피 하나
더 사 와라~ 맞다 너 돈 없지? (지갑에서 5만
원을 꺼낸다) 자 남은 돈은 너 가져. 너 야간 알
바도 한다며? (작게) 돈이 얼마나 궁하면... 쫓
쫓 (퇴장)

담이: 하아.. (옆에 있던 앞치마와 물통 대걸레를
가져와 청소한다.) 얼굴도 못 생긴게! 재수없
어! 입맛도 이상한게! ... 나는 그냥 담을 넘는
것 뿐이잖아. (걸레질을 하다 멈추고 관객을 바
라보며) 내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고? 내
가? 정말 그런 걸까? 한 번도 담 넘는 게 남한
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? 담을 넘는
게 나한테만 좋은걸까.. 내가 남들을 불행하게
만드는건 아니겠지?

행인 1: (전화하고 있음) 엄마! 나 이번에 승진해!! ..
어! 알았어~ 아빠한테 내가 고기 쏜다고 말해
줘 ~

담: (부럽게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한다 엄마한테
전화한다)

엄마: 담아~ 잘 지내고 있어?

담: 당연하지~ 엄마는?

엄마: 딸 무슨 일 있어? 목소리가 왜 그래?

담: 아니 나 기분 완전 좋은데? 오늘 사장님이 일 잘한
다고 칭찬했어. 아마 다음 달에 승진할 거야. 엄
마! 엄마는 잘 지내고 있지?

엄마: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... 근데 너희 아빠가 좀
아파..

담: 엄마 왜 말 안 했어.

엄마: 너 힘들 텐데.. 그걸 어떻게 말해..

담: 난 괜찮아 엄마.. 내가 뭐가 힘들어 아빠랑 엄마가
더 힘들지..

엄마: 담아 힘들 텐데.. 고마워 엄마, 아빠 걱정하지 말
고

담: 알았어... 엄마! 내가 이번 주 안으로 돈 보낼게.

엄마: ... 고마워 사랑해 담아..

담: 알았어~ 엄마 나도 사랑해.. (눈물을 빠르게 닦는
다.) 하아... 진짜.. 대기업 회사 직원이라고 거
짓말하고, 담 넘어 다니느라 아빠 아픈 것도 모
르고... 왜 난 평범하게 걸어갈 수 없는 거야!
그까짓 담이 뭐길래..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챙
기기도 바쁜데 계속 담을 넘어야 하는 걸까...
아냐 담은 내 인생을 바꿔줬잖아. 담이 없었다

면 난... 정신 차려. 난 대기업 회사의 비밀 요원이 아니라 걸레로 바닥이나 닦는 청소부라는 걸. 그까짓 담 하나 넘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... 담 넘어서 뭐 하겠어... 이 순간 이후로 내가 다시 담을 넘으면 난 사람이 아니다. 하 커피나 사러 가야지...

4장

<카페 창문으로 등장>

카페사장: 아가씨! 창문으로 들어오지 말랬지!

답이: 아... 죄송해요.. 습관이 돼서.. 이제 평범하게 들어올게요.. (시무룩하게)

카페사장: 그래.. 평범하게 들어와라... 앵? 평범하게 들어온다고 왜?

답이: 이제 담 안 넘어 다닐 거예요.

카페 사장: 어머 갑자기 왜 이래? (사이) 뭐야 울었어?

답이: 메밀국수 하나랑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

카페 사장: 어머 내 말 무시하는 것 좀 봐.. 에휴 요즘

젊은 애들이란...

답이: ...사장님.. 사장님은 왜 이런 이상한 카페를 차렸어요?

카페 사장: 뭐가 이상한데?

답이: 몰라서 묻는 거예요? 카페면서 커피 맛은 이상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팔고 이럴 거면 음식점을 차리면 됐잖아요. 카페에서 밥을 팔다니.. 이상한게 당연하죠..

카페 사장: (메밀국수를 내밀며) 처음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.

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판정 지어 버리지.. 난 그게 싫어서 이 카페를 만든 거야. 나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

내가 만든 카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싶지 않았고. 내 카페는 커피에서 짠맛과 매운맛이 나야 하고 한식, 중식, 일식을 파는 것이 법이야.

이 카페는 이상한 카페가 아니야. 그냥 내 카페일 뿐이야. (사이) 넌 왜 담을 넘는 거야?

담:전.....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왜 담을 넘는지. 그냥... 재밌잖아요.

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..

처음에는 우연히 담을 넘게 됐지만, 그 경험으로 인해 전 다른 세계를 보았어요.

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.. 사장님. 이렇게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 본적 있으세요?

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 또 다른 나를 볼 수가 있어요.

전 항상 담을 넘으면 당당해져요.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의지대로 행동하고 아무도 저를 억압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전 소심하고 자기 의사 하나 제대로 말 못하는 멍청이가 돼요...

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

카페 사장: 그게 담을 넘는 이유야?

담:

카페 사장: 질문을 바꿔볼게. 넌 왜 담을 넘어다녔던 거야?

담: 전 대기업 회사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청소부고 자존심도 없고,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... 하지만 담을 넘는 그 순간엔 제가 제가 아니게 돼요..

담을 넘는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...

전 제 인생에서 제가 빛나고 싶어요. 친구나 부모님,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. 근데 전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해요.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가 내 것을 원하면 전 그 사람한테 줘야 해요... 제가 원하지 않아도 남들이 원하면

따라줘야 해요 근데 담을 넘는 것만큼은 아니었어요. 제 의지이고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거였다고요. 하…..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

카페 사장: 너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니야?

담: 진…

(소방차 사이렌 소리)

카페 사장: 어머! 깜짝이야! 이게 뭘 소리니?

담: 소방차네… 혹시 옆 건물에 불난 거 아니에요?

카페 사장: 내 카페 타면 안 되는데!! 저기요! 불이 어디에 난 거예요??

행인 1: 아 요 앞 건물 있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 거기서 불났던데요

담: 예? 사장님! 저 가볼게요! (아메리카노 들고 담을 넘어 회사로 간다)

카페 사장: 야! 돈은 내고 가야지! 다음번에는 경찰서에서 만날 준비해라!!

(행인1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다.)

5장

<담이네 아지트>

옐로우 캣: 배고프다...

핑크 캣: 담이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.. 참치 얼마나 맛있을까..

옐로우 캣: 있잖아. 난 담이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가 너무 좋아.

핑크 캣: 난! 남들은 다 더럽다고 피하던 우리를 담이님이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맛있는 밥을 주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... 그래서 가끔 그때의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한 거 있지...

옐로우 캣: 난 담이님이랑 낚시할 때가...

화이트 캣: 너희! 담이님한테 은혜 갚겠다는 생각은 벌써 잊어버린 거야?

핑크 캣: 당연히 아니지! 부모에게 버려진 우리를 담이님이 거두어주셨는데...

옐로우 캣: 맞아... 그때도 우리에게 참치를 주셨지... 참치...

핑크 캣: 그보다 너 어디 있다가 오는 거야?

화이트 캣: 나? 나는... 담이님 방 청소하고 왔지.

핑크 캣: 담이님 방은 출입금지잖아! 너! 담이님 방 더럽히고 왔지? 담이님이 오자마자 누가했냐고 물어볼 거야!

옐로우 캣: 그럼 참치는 떠나겠지... 참치...

화이트 캣: 청소한 거야! 청소!

핑크 캣: 거짓말하지 마! 네가 어떻게 청소를 해! 보나마나 또 그 손으로 문에 예술을 창조했겠지.

화이트 캣: 이게!

핑크 캣: 뭐 덤벼봐!

**(화이트 캣 과 핑크 캣이 몸싸움을 하다가 드러눕는다
옐로우 캣은 자리를 떠난다)**

핑크 캣: 담이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...

화이트 캣: 야!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?
우리도 얼른 연습해서 담이님처럼 담을 넘을 수 있게 연습해야지.

핑크 캣: 난... 아직 담이 무섭단 말이야!

화이트 캣: 너 이러다가 담이님한테 버림받으면 어떡
할 거야!

핑크캣: 담이님은 절대 날 안 버려!

화이트 캣: 너 평생 이러고 살 거야? 담이님이 주시는
밥만 먹고 살 거냐고! 우리도 담이님한테 도움
이 돼야 할 거 아니야!

핑크 캣: 그치만...

화이트 캣: 네가 안 가도 난 갈 거야.

핑크 캣: 누가 안 간대!! 안 간다는 게 아니라.. 우린 담
도 못 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말이지...
우리가 담이님에 짐이 되면 어떡해...

화이트 캣: 담이님이 그랬잖아.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하
는 건 너희가 담을 넘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속
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난 내가 담을 넘을 수
있을 거라고 속일 거야.

핑크 캣: 너 말이 맞아. 무서워서 도전해보지도 않고
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
노력해야 하는데..... 고마워

화이트 캣: 우린 할 수 있을 거야

옐로우 캣: 애들아! 담이님 회사에 불났어!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다 같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.

(긴장되는 음향/ 조명 어두운 파란색)
(담을 우여곡절 넘는 것을 보여줌)

6장

<회사>

소방관 1: 여기!! 응급환자가 있다!

담이: 생각보다 불이 크잖아?

행인 1: 소방관님 저기 내 딸이 있어요.. 제발 구해주세요...

뺨질이 엄마: 뺨질아~~ 뺨질아~~ 우리 뺨질이 본 사람 있어요? 이렇게 생겼는데...(웃기게 생긴 사진을 보여준다.)

소방관: (무전기에 대고) 옥상에 4명 인원이 확보됐다.

담이: 옥상에 4명... 지금 구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...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내가 잘 할 수 있는건 담 넘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저 불을 뚫고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..

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...

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.. 소방관 아저씨들이.....

화이트 캣: 저기에 담이님이 있을지도 몰라! 우리가 구하러 가야 해!

(담 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이 나타나자 숨음)

핑크 캣: 좋...좋아! 우리가 담을 넘어서 올라가자!

옐로우 캣: 너희 할 수 있겠어? 우린 오늘 처음 담을 넘어봤다고 근데 불을 넘어서 담이님을 찾으려 가는 게 말이 돼?

화이트 캣: 담이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. 이건 너희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.

옐로우 캣: 맞아 담이님을 구하러 가자!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가자!

담: 이런 모습은 내가 아니야.. 난 담을 넘는 아이라고!

(망토를 두른다)

화이트 캣: (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지진이 일어나자
중심을 잃고 담에서 떨어지려고 한다)

핑크 캣: (화이트 캣에 손을 잡음) 내 손 꼭 잡아!

(멋지게 뛰어 화이트, 핑크, 옐로우캣을 구한다)

담: 괜찮아?

화이트 캣: 담이님!

핑크 캣: 담이님을 구하려고 했는데... 어서 내려가요!

담: 아니. 아직 위에 사람들이 있어.

옐로우 캣: 저희도 따라갈게요.

담: 위험할텐데.. 괜찮겠어?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네! (다 같이 담을 넘는다)

(빨간 조명으로 바뀌고 불타는 소리가 들린다)

직원 1: 여기예요! 여기!

담: 다들 괜찮으세요?

(화이트/핑크/옐로우 컷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)

직원 1:네

담: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?

직원 1: 8명이요

담: 내가 생각했던 수보다 훨씬 많잖아... 여러분!! 지금부터 담을 넘어 이곳을 탈출할 거예요.

뺨질이: 너 미쳤어? 이 꼭대기에서 어떻게 담을 넘어서 탈출해.

담: 시간이 없어요!

여러분들이 제 말만 잘 듣고 따라와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.

제발. 절 믿어주세요...

(담이 먼저 길을 나서자 그 뒤로 화이트/핑크/옐로우 컷이 따라온다. 무사히 건너편으로 넘어간다)

담: (기둥에 긴 천을 묶는다.) 지금부터 이 천을 이용해 서 사람들이 넘어올 거야. 천을 저 기둥에 묶어 줘.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컷: 네!

(담이 자신의 몸에 천을 묶고 다시 옆 건물로 넘어간다. 사람들이 순서 대로 옆 건물로 무사히 이동한다. 뺨질이만 남았다.)

뺨질이: 빨리... 나도 구해줘...

(건물에 가스가 터져 건물이 점점 무너진다.)

담: 곧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거야...

뺨질이: 으아악 불! 옷에 불이 붙었어!!

담: (아메리카노를 부어 불을 끈다.) 시간이 없어요!
(뺨질을 데리고 옆 건물로 가던 중 뺨질이
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다 담의 망
토를 벗김)

뺨질이: (바람이 불어 떨어지려고 함) 으아악 야! 살
려줘! 살려달라고!

담: 내... 내 망토.. 망토가 없으면..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담이님!! 뭐 하시는 거예요!
망토 찾을 시간이 없어요!

뺨질이: 진짜 떨어지겠어! 네가 담을 넘는 일은 사회
를 구하는 일이야. 너의 사명감을 잊지마 사회
의 질서를 지키라고! 고민하지마! 지금 네가 생

각하는 그거야! 날 구하라고!

담: ...이건 내가 아니야.. 난 못해..

카페 사장: 담아! 너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? 주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너한테서... 담아 넌 충분해 부족하지 않다고 담을 넘든 넘지 않든 그건 너야! 숨지마!

담: 나.. 난! (뺨질을 구한다) 난 담이야! 난 나라고!

뺨질이: 단체로 돌아왔어..

(건물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담이를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)

(담은 다시 망토를 쓴다.)

뺨질이 엄마: 정말 고맙습니다.. 정말 고마워요...

담: 아.. 아니에요..

뺨질이: 엄마! 뭐가 고마워! 재 때문에 죽다 살아났는데!

뺨질이 엄마: 넌 생명의 은인한테! 따라와! (뺨질이 귀 잡고 퇴장)

행인 1: 팬이에요! 사인 좀 해주세요!

담: 네? 네..

카페 사장: 인기 많은데? 담아 지금 이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 아닐까?

담: ... 고마워요...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담이님! 망토를 벗어도 충분히 멋있어요!

카페 사장: (망토를 벗기며) 이게 너야

담: ... 사실 나는 망토를 써도 안 써도 담을 넘을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나봐 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.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맞아요 우리도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요

다 같이: 그래! 우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했어!

담: (크게 웃는다) 야! 가자!

화이트/핑크/옐로우 캣: 어디요?

담: 담 넘으러!